

살롬! ㅈㄴ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보냄 받은 U 국에 정착한지 2 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지만 ㅈㄴ의 은혜로 정착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U 국 낯선 땅에서의 정착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ㅎㄴ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곳에서 헌신해 오신 여러 ㅈㄴ사님들의 현장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ㅎㄴ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참여 시키고 증인 삼으시기 위해 여러 사역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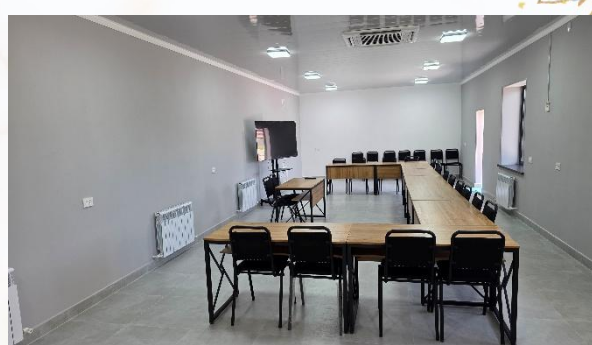
먼저, 저희 부부는 U 국에서 유일하게 인가된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도입 준비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수료자들이 U 국 교육부가 공인하는 석사 학력과 국가 종교위원회의 공식 종교지도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U 국 뿐 아니라 인근 국가들의 현지인 목회자 양성과 현직 교역자의 재교육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역할은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미국 신학대학원의 교과 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현지 목회자가 운영 가능한 목회학 석사과정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 신학교의 참여와 후원은 물론이고 미국내 여러 교회들의 기도와 동역이 절실한 사역입니다.

외국인 교수가 현지 대학교에서 한 학기라도 강의하려면 교육부 사전 허가 와 이를 근거로 한 입국 비자가 필요한데 짧은 기간에 허가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서 Hybrid 과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학기 중 교수님들의 강의는 미국에서 On-Line 으로 진행하고 강의를 끝난 후, 단기간 방문하여 직접 학생들과 교통하며 심도 깊은 토론으로 학습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아직 까지는 대학원 설립 인가 조건을 갖추기 위한 초보적인 준비 과정에 있지만, 항상 예비하시는 ㅎㄴ님께서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여 강의실을 먼저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가을부터는 On-Line 강의와 대면 토론으로 진행되는 Hybrid 과정부터 개설하고 대학원 과정 수업을 위한 예비과정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신학교 졸업생, 현지 목회자들을 학문적인 지식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과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2. 미국 신학교수님과 목사님들이 많이 자원해 주셔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개설되게 하시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종으심을 머리와 가슴으로 새길 수 있도록
3.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공간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재정이 충족되어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4. 현지인 목회자, 한인교회 교역자, 선교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변 무슬림 이웃을 향한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5. 현지 체류신분을 합법적인 채널과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길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서반석, 이루다 올림